

韓銀, 콜금리 3개월제 동결

“환율 하락 부추길라” 일단 현상태 유지

유가 상승·IT가격 하락·건설 부진 등 ‘더블딤’ 우려도 전문가들 “경기둔화 가능성 시인...年内 인상 어려울듯”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1천100원대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4개월여만에...

점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통위원들로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역시 한은 금통위의 과감한 결단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환율 급락은 환차익 노린 외국자금 탓”

신한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은 환차익을 노린 외국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수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환율이 수직 낙하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한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이틀째 상승...65.93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이틀 연속 올랐다.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달리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 역시 1.56달러 오른 72.13달러에 거래됐다.

고용시장 ‘겨울잠’

계절조정실업률 3.5%...광주·전남은 큰폭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보다 1.9%(8만3천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체감경기와 밀접한 도소매·음식숙박업도 0.3%(1만8천명) 감소했다.



11일 서초동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현대·기아 협력회 주최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위기에 따른 부품산업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업체들 “경영 위기” 호소

현대·기아차 부품업체들이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영진들의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돼 하루속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차체 부품을 납품하는 성우하이텍 이명근 대표도 “현대차의 체코 공장에 맞춰 동반 진출을 고심중인대 정회장의 구속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年소득 1억 육박

월 평균 845만원

도시근로자가구 중 소득상위 10% 가구의 연간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3천6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 결과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605만원에서 2001년 665만원, 2002년 687만원, 2003년 699만원, 2004년 736만원, 2005년 774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일회성 성격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000년 7천260만원, 2001년 7천980만원, 2002년 8천240만원, 2003년 8천390만원, 2004년 8천830만원, 2005년 9천290만원 등이 된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ENG카메라, 콜센터, 병원프로그램 개발, 한국공업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서도건설, HRN, 코드세일, 스텝포유, 주식회사 소디, GM대우자동차판매, 마트앤마켓.

연합뉴스

“삼성-현대그룹 가장 성공할 글로벌 기업”

골드만삭스 27개사 선정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GE, MS, 노키아 등과 함께 성공적이고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미래 글로벌 기업으로 꼽혔다.

10년이상 후 20년간 3배 늘어

10년 이상된 장수 차량 비율이 20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자동차 통계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557만여대이며...

삼성전자-하이닉스 美집단소송 거액 지급키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내 D램 소비업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천700만달러와 7천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환경기술개발 3,500억 투입

올 한해 생태계 복원과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해양 등 환경 기술개발에 모두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금년중으로 나노기술(NT) 선진 3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토대가 본격 구축되는 등 나노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가속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